

요한복음 2:4의 $\Gamma\acute{\upsilon}\nu\alpha\iota$ 용법에 대한 유진 나이다의 견해

거트 M. 네퍼(Gert M. Knepper)*

김형동 번역**

<초록>

이 연구 논문은 요한복음 2:4에 있어서 $\gamma\acute{\upsilon}\nu\alpha\iota$ 의 용례에 대한 유진 나이다의 견해와 상응하는 논의들이 50여년 이상에 걸쳐 변화해 온 방식을 고찰한다. 그는 한편으로 지탱할 수 없는 그의 견해에 대한 점차적으로 더욱더 시시각각 변하는 논의들을 만들어 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이 특별한 호칭이 지닌 좀 더 부드러운 뜻을 선호하는 것 같다. 본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한 최근의 견해들을 요약하고, $\gamma\acute{\upsilon}\nu\alpha\iota$ 의 번역에 대한 논평으로 마무리한다.

1. 서론

수많은 경우에 고(故)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는 단독으로 혹은 다른 저자와 공동으로 요한복음 2:4의 $\gamma\acute{\upsilon}\nu\alpha\iota$ [*gunai* / *gynai*]의 뜻과 번역에 대한 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¹⁾ 본 논문에서 나는 이 쟁점에 관한 그의 견해의 발전과 그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한 최근의 견해로 결론을 맺을 것이다.

“낱말들은 어떤 한 언어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다른 언어에서도 항상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1952년에 나이다가 피력한 이 견해는 그 당시 요한복음 2:4의 $\gamma\acute{\upsilon}\nu\alpha\iota$ 의 용례에 대해 그 실례를 적용하도록 자극하였고, 또한 그로 인해 그는 이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 그는 **함축적 의미**를

* Independent scholar of Classical Greek, gmknepper@gmail.com.

** 부산장신대 교수, 신약학, hd9191@hanmail.net.

1) 가독성을 위해서 이 논문 전체와 원문이 *gunai* 혹은 *gynai* 표기를 가지는 인용문에서 그리스어 철자 $\gamma\acute{\upsilon}\nu\alpha\iota$ 를 사용하였다.

과약하고 번역하는 한 예로 이것을 사용하였다. 그는 이후 이 개념을 “날말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다루는 의미의 양상”²⁾으로 묘사하였다.³⁾ 문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서 어머니의 요청에 ... 예수가 자신의 어머니를 “γύναι(여자)”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가? ... 그러한 용어는 예수 자신의 본성에 있어서 엄정함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에게 신실했었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책망을 내비치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성서 그리스어 시대에 “γύναι(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존경과 애정을 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γύναι(여자)”의 사용은 예수가 보다 공식적 언어, “어머니”를 사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애정을 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로 다른 언어를 판단하는 치명적 실수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⁴⁾

아래에서 먼저 나는 나이다가 단독으로 혹은 공동 저자와 함께 요한복음 2:4 γύναι에 대한 그의 의견을 피력한 인용문들을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그 목록을 추가로 제시하겠다.

2. 나이다가 말하고 있는 γύναι: 요약된 인용

1) ‘γύναι’는 영어의 ‘woman(여자)’보다 더 호감을 갖는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2)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그의 어머니를 ‘γύναι(여자)’⁵⁾로 호칭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정중한 것이다(마 15:28 비교). 19:26의 평행에서 분명히 볼 수

2) Eugene A. Nida and Charles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Bible Translating*, UBS Helps for Bible Translators 8 (Leiden: Brill, 1969), 91.

3) 과학적 개념으로서의 “함축적 의미”는 나이다가 만든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훨씬 이전의 용례에 대해서는 James Haig, *Philosophy; or, the Science of Truth* (London: Saunders, Otley, and Co), 1861을 참조하라.

4) Eugene A. Nida, *God's Word in Man's Language* (New York: Harper & Row, 1952), 67-68.

5) 영어 woman을 시종일관 “여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말에서 “부인”, 히브리어에서 “그베렛” 같은 말은 공식석상에서나 공중(公衆) 앞에서 독자적 기능을 행사하는 여성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호칭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여성이 자기 어머니이거나 아내이거나 딸일지라도, 그들에게 “부인(夫人)” 혹은 “자매(姉妹)”라는 호칭을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역자는 본 논문이 요 2:4의 γύναι의 번역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에 우리말 성서에 준하여 “여자”로 번역한다(역자주).

있듯이 그것은 불손함이나 애정의 결핍을 보여주지 않았다. … [‘여자’라는 번역]은 예수가 무례하였다는 인상을 전하기 쉽다. … 어떤 언어에서는 자기 어머니를 여자로 부르는 것은 모욕적일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예수가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⁶⁾

3) “그리스어에서 γύναι는 영어 단어 ‘woman(여자)’보다 훨씬 더 호감을 갖는 친분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뜻을 가진다.”⁷⁾

4) γυνή는 코이네 그리스어에서 호칭의 형태로 사용될 때 여성을 가리키는 공손한 표현이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마 15:28). 요한복음 2:4에서 예수는 그의 어머니를 공손하게 부르기 위해 γύναι를 사용한다. 많은 언어들에서는 예수로 하여금 그의 어머니를 그저 ‘γύναι(여자)’라고 부르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많은 언어들에서는 예수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다수의 언어들에서는 예수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 또는 ‘나의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⁸⁾

5) “예수는 자기 어머니를 γύναι, 문자적으로 ‘여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호칭의 형태는 종종 존경이나 애정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cf. Euripides and Theocritus, 후대 파피루스 문서들). … 자기 어머니를 “γύναι(여자)”로 부르는 것은 많은 언어들에서는 예수와 어머니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될 수가 없다.”⁹⁾

6) 언어적 일치성에 대한 압박은, 함축적 의미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요한복음 2:4에서 예수가 그의 어머니를 ‘γύναι(여자)’로 부르는 방식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초래하였다. ‘여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임을 부정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 되고, 다른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모멸적인 표현인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그 표현은 전적으로 적절하고, 존경을 표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린 학생들이 집에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포함하는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발견된 표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오늘날의 성서 번역자들은 적절한 용어

6) Barclay M. Newman and Eugene A. Nida,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Gospel of John*, UBS Helps for Translators 26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80), 57.

7) Ernst R. Wendland and Eugene A. Nida, “Lexicography and Bible Translation”, J. P. Louw, ed., *Lexicography and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Bible Translation*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85), 18.

8) Johannes P. Louw and Eugen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 vol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1:109 s.v. γυνή.

9) Eugene A. Nida, *Lexical Semantic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Resources for Biblical Study 25 (Atlanta: Scholars Press, 1992), 15.

“어머니”를 사용한다.¹⁰⁾

7) 요한복음 2:4에서 예수가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한 그리스어 원문은 ‘γύναι’, 문자적으로 ‘여자’이다. … 그리스어 직역은 거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손한 것 같다. … 하지만 코이네 그리스어 ‘γύναι’라는 낱말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 학생들의 공손한 파피루스 편지에서 종종 나타난다.¹¹⁾

3. 분석 연구

50여 년 간에 걸쳐 나이다가 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수많은 주석을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명백히 그는 ‘γύναι’의 용례를, 의미 영역은 종종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일치되게 번역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주 어구의 의미를 반역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의, 특별한 사례로 간주하였다.

그의 견해에 있어서 두 가지 발전을 주목할 수 있다:

1) ‘γύναι’는 저자가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보다 더 많은 애정을 담고 있다는 1952년의 나이다의 다소 강한 언급은, 이후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신 1969년 이후부터 나이다는 다소 부드러운 주장을 옹호한다: “이 용어는 이제 예의/정중함/공경을 표하는 것으로 고려된다”.¹²⁾

2) 1980년 이후부터 나이다는 ‘γύναι’가 공경/예의를 담고 있는 호칭이라는 그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실제로 항상 같은 성격을 가진다: 나이다는 자신이 주장하는 ‘γύναι’의 의미에 대한 평행문을 제공한다. 처음에 그는 요한복음 19:26과 마태복음 15:28에 자신을 국한시킨다. 그러나 로우(Johannes P. Louw)와 나이다의 1988년의 그리스어-영어 사전¹³⁾에서 그의 연구는 “코이네 그리스어”로, 1992년에는¹⁴⁾ 유리피데스(즉, 고전 그리스어), 테오크리투스(코이네), “후대 파피루스”(로마 시대로 추정

10) Eugene A. Nida, “Translators’ Creativity Versus Sociolinguistic Constraints”, Ann Beylard-Ozeroff, Jana Kralova, and Barbara Moser-Mercer, eds., *Translator’s Strategies and Creativity: Selected Papers from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rague, September 1995)* (Amsterdam: Benjamins, 1998), 129.

11) Eugene A. Nida, *Fascinated by Languages* (Amsterdam: Benjamins, 2003), 30.

12) 나이다는 *Lexical Semantics of the Greek New Testament*에서 여전히 “애정”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언급한다.

13) Johannes P. Louw and Eugen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14) Eugene A. Nida, *Lexical Semantics of the Greek New Testament*.

되는)로 확장된다. 로우와 나이다의 1988년 사전에서는 고전 그리스어와 코이네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나이다의 *Lexical Semantics of the Greek New Testament*에서 언급된 파피루스 문서에 대해서는 상술한다. 이 문서들은 이집트의 것으로 “집에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 학생들이 쓴 편지들과 관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3년의 *Fascinated by Languages*에서는, 이러한 파피루스는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정중한” 것으로 주장된다.¹⁵⁾

그러나 나이다의 주장은 실제로 얼마나 탄탄할까? 이 점을 확인하려면 먼저 우리는 나이다가 주장하려는 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실, ‘여자’를 사용한 용례는 저자가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보다 더 많은 애정을 담고 있다”¹⁶⁾는 그의 강한 주장은 이때 한 번이고, 이후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후 나이다가 그의 이전의 견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음을 함축할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그의 주장이 필연적으로 잘못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우리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하는 점이 분명치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봐왔듯이 나이다는 ‘γύναι’의 사용이 애정과 친밀감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정중함과 공손함을 보인다는 견해로 돌아선 것 같아 보인다. 그러므로 이 견해에 관련된 논의들을 검토해보자.

먼저,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Gospel of John*¹⁷⁾에서는 정상적이고 공손한 호칭으로서의 ‘γύναι’의 예로 마태복음 15:28을 든다. 여기서 나이다는 문맥적 정황으로부터 추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맥은 예수가 가나안 여인을 예외적 방식으로 부르고 있다고 가정할 아무런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것은 반론이 제기되지 않는 한 ‘γύναι’의 이러한 특별한 사용이 정상적인 용례이고, 반드시 “무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요한복음 2:4에 있어서 이 낱말의 용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마태복음 15:28은 모르는 여자를 짐작해 ‘γύναι’로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만을 말할 뿐이다. 나이다는 또한 누가복음 13:12를 지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γύναι’는 유사한 정황에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57은 정중함이 논외인 정황에서도 같은 호칭이 똑같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이다의 다음 논의는 요한복음 19:26에서의 “평행 용례”이다. 석의적으

15) Eugene A. Nida, *Fascinated by Languages* (Amsterdam: Benjamins, 2003).

16) Eugene A. Nida, *God's Word in Man's Language* (New York: Harper & Row, 1952).

17) Barclay M. Newman and Eugene A. Nida,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Gospel of John*.

로 평행 용례라고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2:4와 19:26은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의 어머니(그런데 그 여자는 요한복음에서 결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가 등장하는 유일한 본문들이다. 그리고 물론 이 두 본문에서 예수는 어머니를 ‘γύναι’로 부른다. 그러나 ‘γύναι’라는 호칭은 두 경우 모두 예외적이고 심지어 선택이 없다. 모든 그리스 문헌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어머니를 ‘γύναι’로 부르지는 않는다.¹⁸⁾ 이것은 19:26에서 ‘γύναι’의 용례는 2:4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라는 점을 함의한다. 앞서 2:4의 ‘γύναι’는 19:26에서와 마찬가지로 혹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나이다와 마찬가지로 2:4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19:26을 증거로 인용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다음에 이 용례의 정확한 성격이 파악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불손함도 사랑의 결여도 드러내지 않는다”고 미리 가정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말한다 해도 미성숙한 것이다. 대체로 요한복음 2:4의 ‘γύναι’가 공손하다(혹은 적어도 불손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나이다에 의해 제공된 이 둘의 평행 용례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벤틀란트(Ernst R. Wendland)와 나이다는, 1985년의 “Lexicography and Bible Translation”에서는¹⁹⁾ 이전의 언급과 비교해 볼 때 아무런 새로운 것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비판에 직면했다. 마땅히 그럴 만했다. “γύναι는 영어 단어 ‘woman(여자)’보다 훨씬 우호적인 친분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다”는 주장이 필연적으로 잘못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다가 그의 의견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머는 “이것[소위 ‘γύναι’의 호감을 갖는 의미]이 온전히 유효한 결론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결론이 어떻게 도출하게 되었는가?”라고 묻고 있다. 주어진 제한된 자료에서 어떻게 친분 관계적 의미가 도출될 수 있는가?²⁰⁾

1988년부터 나이다는 그의 논의를 신약성서 평행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이제 그는 전반적인 “코이네 그리스어”를 참고한다²¹⁾: 여기서 “γυνή는 여

18) 문자적으로 말해서, 이 언급은 부정확하다: 소포클레스의 *Oedipus Rex* (외디푸스 왕), 624, 800, 1054번째 줄에서 외디푸스는 그의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시점에 그는 그가 결혼한 여자가 그의 어머니인 것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19) Ernst R. Wendland and Eugene A. Nida, “Lexicography and Bible Translation”, J. P. Louw ed., *Lexicography and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Bible Translation*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85), 1-52.

20) Michael Palmer, “How Do We Know a Phrase Is a Phrase? A Plea for Procedural Clarity in the Application of Linguistics to Biblical Greek”, S. E. Porter and D. A. Carson, eds., *Biblical Greek Language and Linguistics: Open Questions in Current Researc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8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3), 155.

21) Johannes P. Louw and Eugen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성에게 정중하게 말할 때 사용되었다”. 인정하건데 그는 위에 언급한 마태복음 15:28의 예를 들어 다시금 이 주장을 펼치지만, 그 견해/관점(outlook)의 폭은 명백히 넓어졌다; 신약성서의 ‘γύναι’ 사용은 분명히 코이네 그리스어 용례의 일부분이다. 1992년부터 ‘γύναι’에 대한 이해의 폭은 더 넓어졌다: ‘γύναι’는 이제 존경 혹은 애정이 담긴 용어이다. “유리피데스와 데오크리투스, 또한 후대 파피루스”가 이를 증거한다. 유리피데스로 우리는 고전 그리스어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다; 데오크리투스는 당연히 그리스 시기에 속하지만 “후대 파피루스”는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예들은 난데없이 나온 것 같지만 나이다는 확실히 오랫동안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1945년 에드가 굿스피드(Edgar J. Goodspeed)는 부분적으로는 요한복음 2:4의 해석적 문제점을 다룬 책을 출판하였다. 굿스피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γυνή는 …, 리텔-스콧-존스 사전(이후 ‘LSJ 사전’으로 표기)²²⁾에 명시하기를, 유리피데스와 데오크리투스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존경 혹은 애정의 용어로 “마님, 부인”에 대한 호격으로 사용된다”. LSJ 사전에서 관련 구절은 “γυνή는 호격으로 존경과 애정의 용어로 … **마님, 부인** … E. Med. 290, Theoc. 15.12, etc.”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1952년 *The Bible Translator*는 굿스피드의 책으로부터 발췌한 인용문으로 구성된 논문을 출간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책 가운데 ‘γυνή’에 대한 연구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²³⁾ 굿스피드의 책과 LSJ 사전은 나이다에 앞서 ‘γυνή’가 “존경이나 애정의 용어(term of respect or affection)”로 사용된다고 말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이다도 1992년에 γύναι가-나이다의 말 그대로 빌리자면-“존경 또는 애정을 담은 용어”(respectful or affectionate term)로 사용된다는 주장과 함께 정확하게 똑같은 근거 두 개를 제시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나이다가 그가 제시한 정보를, 굿스피드의 책이나 논문으로부터 또는 LSJ 사전으로부터 그리고 어찌면 이 둘 모두로부터 얻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γύναι’가 “예수가 어머니라는 격식을 차린 말보다 더 애정을 담고 있다는 그의 초기 주장은 여전히 설명될 수 없다. 특별히 굿스피드가 그의 책과 논문에서 ‘γύναι’는 [어머니]보다 애정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이러한 주장의 출처는 여전히 수수께끼이다.

그러나 “후대 파피루스”는 어떠한가? 그것들은 굿스피드의 책이나 논문 그리고 LSJ 사전에 나타나지 않는다. 로우와 나이다의 1988년의 그리스어-

22) H. Liddell, G. R. Scott, and H. S. Jones, *A Greek-English Lexicon*, 9th ed., with revised supple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23) Edgar J. Goodspeed, “Problems of New Testament Translation”, *The Bible Translator* 3:2 (1952).

영어 사전은 이 문서들의 성격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린 학생에 의해 쓰여진 편지들”을 언급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예들과는 다른 매우 재미나는 차이점이다: 처음으로 나이다는 독자들에게 ‘γύναι’가 **자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되는 증거를 제시한다. 그가 이전에 제시한 모든 평행들이 비평의 시련을 견딜 수가 없음을 알아차렸을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이다는 언급된 파피루스의 정확한 이름이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이다는 2003년 *Fascinated by Languages*에서 ‘γύναι’의 사용에 대한 그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밝힌다. 그는 ‘γύναι’가 어머니의 호칭으로 파피루스에 **자주 등장한다**는 첨가된 주장과 더불어 1998년부터의 그의 주장을 거의 문자적으로 반복한다. 유감스럽게도 나이다는 여전히 이 중요한 편지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제시하지 않는다.

4. 결론

나이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 요한복음 2:4에서의 ‘γύναι’의 문제를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γύναι’의 뜻에 대한 그의 견해는 “어머니보다 훨씬 애정이 담긴”에서부터 “사랑이 담기지 않은 것이 아닌”을 지나 “정중한”에서 “예의 바른”으로 끝난다. 처음의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이다가 오랫동안 ‘γύναι’와 관련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4와 19:26에서 ‘γύναι’의 용례는 모든 그리스 문헌에서 선례가 없으며 그러므로 ‘γύναι’의 **다른** 용례를 보여주는 소위 평행은 간단히 말해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1992년에 와서야 나이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것 같다. 그것은 그 후로부터 그가 ‘γύναι’의 용례에 대한 그의 견해를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어머니를 ‘γύναι’로 부르는 이집트 파피루스를 언급하는 이유일 것이다.

요한복음 2:4(와 19:26)에서의 ‘γύναι’의 용례의 참된 평행은 진실로 환영을 받을 것이다. 나이다가 하나 이상의 것들(파피루스들, 편지들, 초등학생들, 어머니들)을 장담하였기에 기대감은 당연히 높았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나이다는 이 어린 학생들의 정체를 밝힐 그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 이 학생들은 석의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아이들로부터 ‘γύναι’라고 불리는 파피루스들의 소재를 밝힐 어떠한 암시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아이에 의해

쓰여진 편지는 말할 것조차 없고, 호격인 ‘γύναι’를 담고 있는 **하나의** 파피루스조차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나이다가 실수를 한 것일까? 만일 그러하다면 이러한 실수의 원인은 미츨(Johann Michl)이 했던 것과 같은 언급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런던의 대영제국 박물관에 소장된 2세기 후반에서부터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편지**에서 셉프로니우스가 그의 어머니와 귀부인/숙녀(lady)에게 쓴 편지에서 심지어 그녀(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나의 귀부인/숙녀(ἡ κυρία μου)라고 부른다.²⁴⁾

실제로 어머니와 결합되어 부인/숙녀/여주인(κυρία)²⁵⁾ 호칭을 가지는 몇몇 파피루스가 있다. 나이다가 γυνή(여자)를 κυρία(부인/숙녀)로 어떻게든 혼동했을까? 어쨌든 κυρία(lady)는 “그 당시 일반 서신에 있어서 정중하고, 심지어 애정이 담긴 형태의 호칭이다”.²⁶⁾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형태와 뜻에 있어서 ‘γύναι’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어쨌든 나이다의 어린 학생들은 예기치 않게 들어왔던 것과 같이 석의적(논의의) 무대를 떠난 것 같다. 이 점은 우리가 출발했던 바로 그 장소에 우리를 남겨 놓고 말았다: 아직 그 평행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요한복음 2:4와 19:26에서 ‘γύναι’는 선택이 없는 용례라는 그 지점에.

5. 최근의 견해들

요즈음 많은 해석자들은 나이다가 접근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한복음 2:4(와 19:26)에서의 ‘γύναι’가 사용된 방식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디키(Eleanor Dickey)의 연구에 기인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호칭으로서의 ‘γύναι’는 사실 공손하지도 무례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명백히 확신하기 때문이다. ‘γύναι’가 존경이나 애정

24) 미츨은 이 예를 Adolf Deissmann, *Licht vom Osten: Das Neue Testament und die neuentdeckten Texte der hellenistisch-römischen Welt*, 4th ed. (Tübingen: Mohr/Siebeck, 1923), 159-161로부터 인용한다. 이제 이 문제의 파피루스는 P.Mich. 15 751이라 불린다.

25) 호칭으로서 κυρία(물론 μητέρα가 없는)에 대해 요2 1절과 5절을 보라.

26) James H. Moulton and George Milligan, *The Vocabulary of the Greek New Testament Illustrated from the Papyri and Other Non-literary Sources* (Grand Rapids: Eerdmans, 1930), 364 s.v. κυρία.

의 용어라는 견해는 “그 증거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정중해 보인다. 그리고 어쩌면 초기 고전주의자들이 여자들을 정중하게 호칭해야 한다고 느꼈던 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²⁷⁾ ‘γύναι’ 호칭은 중립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러므로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성인 여성에 대한 호칭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woman(여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²⁸⁾ 그렇게 하는 것은 냉담하게 들린다. 여기서 ‘사람’(ἄνθρωπε)이라는 호칭과 비교해 보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화자와 모르는 사이의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용어(사람)는 ‘γύναι’처럼 중립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은 정중함과 반대된다.

나이다의 **선협적** 가정은 ‘γύναι’가 애정을 담고 있거나 적어도 공손한 호칭이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를 공손하지 않은 방식으로 불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그의 확신으로부터 생겨났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로 부르는 것은 공손함의 가장 일반적 형태의 하나, 즉 “내집단 정체성 표지”(in-group identity maker)와는 정반대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공손함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특징이다. 그러한 표지는 그녀가 화자와 관계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²⁹⁾ 그리스어에서 정확한 친족 용어는 내집단 정체성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³⁰⁾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는 청중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로 그의 어머니를 부른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냉담하게 자신의 어머니를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가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일상적인 대화에서 예의 없거나 심지어 모욕적인 것이 문학적 상황에서 틀림없이 무언가 다른 영향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이 문학적 정황, 즉 전승의 기록 단계이다. 비록 이러한 고려가 예수가 사용한 ‘γύναι(여자)’라는 호칭이 무례함에서 정중함으로 갑자기 선화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이상한 호칭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놀랄 것도 없이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은 문맥에서부터 나온다. ‘γύναι’는 앞선 “나와 무슨 상

27) Eleanor Dickey, *Greek Forms of Address from Herodotus to Lucian* (Oxford: Clarendon, 1996), 86.

28) *Ibid.*, 86-88을 참조하라. 요 2:4와 19:26은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유일한 예들이다. (눅 2:49는 그 양친을 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부름[호격]이 없다.) 그리스어에서 호격이 사용된다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은 항상 μήτηρ 또는 이 말의 축소형이다(*Ibid.*, 221).

29) Penelope Brown and Stephen C.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107-109.

30) Dickey, *Greek Forms of Address from Herodotus to Lucian*, 15.

관이 있나이까?”라는 표현을 감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 표현으로 예수는 이유가 무엇이든 자신과 그의 어머니 간의 거리를 둔다. 이 점은 선례가 없는 ‘γύναι’의 선택이 적어도 이와 유사한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개연성을 매우 높인다.³¹⁾ 그 결과, 예수가 이런 저런 이유로 마리아의 어머니 됨을 경시하였다는 해석이, 비록 나이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요즈음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γύναι’를 ‘woman (여자)’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나이다의 반대—왜냐하면 이것이 ‘마리아가 자기의 어머니임을 예수가 부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는 확실히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³²⁾

결과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해석자들에게 있어서 질문은 더 이상 요한복음 2:4와 19:26에서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를 마치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부르고 있는 점이 아니라,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하는 점이다.

31) 거리감을 두는 ‘γύναι’의 의미를 주장하는 해석자들 가운데서 브라운은 “γύναι를 ‘어머니’로 번역하는 것은 … 이 호칭의 특이한 점을 가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Raymond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Anchor Bible 29 (Garden City, NY: Doubleday, 1966), 99. 쉬나켄부르크는 “확실한 거리감/무심함”을 말한다. Rudolf Schnackenburg, *Das Johannesevangelium* (Freiburg: Herder, 1979), 333. 콜린스는 ‘γύναι’는 “마리아가 예수와의 모자 관계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비쳐지고 있다는 표시”라고 제안한다. Raymond F. Collins, *These Things Have Been Written: Studies on the Fourth Gospel* (Louvain: Peeters; Grand Rapids: Eerdmans, 1990), 170. 워더링톤은 ‘γύναι’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예수와의] 거리를 둔다”고 말한다. Ben Witherington, *John’s Wisdom: A Commentary on the Fourth Gosp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5), 79. 맥휴에 따르면, “이 특이한 호칭의 선택은 … 복음서 기자가 요한복음 이야기에서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의 어머니 역할과는 매우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내비치기 위해 마리아의 예수와의 혈연관계로부터 벗어난 관심을 끌고자 한다는 견해를 확정한다.” John F. McHugh, *John 1-4: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London: Bloomsbury, 2009), 182. 몰로니는 예수의 대답을 “날카롭다”고 부른다. Francis J. Moloney, *The Gospel of John*, Sacra Pagina Series 4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67. 또한 Gert M. Knepper, “Wat aan mij en aan jou? Betekenis en vertaling van *gunai* in Johannes 2:4 en 19:26”, *Met Andere Woorden* 34:2 (2015), 2-13을 참조하라.

32) 나이다의 견해의 영향력은 카이카에 의해 잘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나이다는 ‘여자’가 ‘어머니’의 일상적이고, 높은 존경을 담은 호칭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른바 “당시의 다른 그리스 작품을 조사함으로써” 그렇게 하였다. Elaine Chaika, *Language, the Social Mirror* (Boston: Heinle & Heinle, 1994), 52. 스타인은 번역에 있어서의 나이다의 접근의 발전에 관한 그의 책에서 어휘의 “감정적 함량”의 일례로서의 ‘γύναι’에 관한 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여자”라는 번역은 마치 예수가 그의 어머니에게 “매우 차가운”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Philip C. Stine, *Let the Words Be Written: The Lasting Influence of Eugene A. Nida*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44. 또한 Vitaly Voinov, “Pronominal Theology in Translating the Gospels”, *The Bible Translator* 53:2 (2002), 216-217을 비교해보라. 그는 “예수는 항상 제5계명을 준수하는 올바른 자식의 도리로 마리아를 대하였다. … 이러한 경우는 심지어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러하다.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를 ‘γύναι’로 부르고 있다.” 보이노브는 토친(Todzhin) 방언에서 요 2:4의 번역에 있어 예수의 대답이 “거리감이 아닌 극도의 존경을 담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는 설명을 계속한다.

끝으로 번역자들의 결론은 무엇일까? 몇몇 언어들(예, 네덜란드어: mevrouw; 불어: madame; 스페인어: señora)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쓰기엔 너무나 거리감이 있어 쓸 수 없는 성인 여성의 호칭의 공통된 형태를 사용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요한복음 2:4(와 이 말이 사용되는 다른 텍스트)의 ‘γύναι’의 적절한 번역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영어와 독일어 같은 다른 언어들에 있어서 비슷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고어로 간주된다(“madam/ma’am”, “gnädige Frau”).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γύναι’를 번역하지 않고 필요한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 τί ἐμοὶ καὶ σοί(“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번역에 맡기는 것이 십중팔구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γύναι’가 “어머니”를 뜻하는 용어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히 본문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명백히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Keywords)

호칭, 함축적 의미, 유진 나이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4, γύναι.

address, connotative meaning, Eugene Nida, Gospel of John, John 2:4, γύναι.

(투고 일자: 2016년 7월 29일, 심사 일자: 2016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Brown, Raymond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Anchor Bible 29, Garden City, NY: Doubleday, 1966.
- Brown, Penelope and Levinson, Stephen C.,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Chaika, Elaine, *Language, the Social Mirror*, Boston: Heinle & Heinle, 1994.
- Collins, Raymond F., *These Things Have Been Written: Studies on the Fourth Gospel*, Louvain: Peeters; Grand Rapids: Eerdmans, 1990.
- Deissmann, Adolf, *Licht vom Osten: Das Neue Testament und die neuentdeckten Texte der hellenistisch-römischen Welt*, 4th ed., Tübingen: Mohr/Siebeck, 1923.
- Dickey, Eleanor, *Greek Forms of Address from Herodotus to Lucian*, Oxford: Clarendon, 1996.
- Goodspeed, Edgar J., *Problems of New Testament Transl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5.
- Goodspeed, Edgar J., “Problems of New Testament Translation”, *The Bible Translator* 3:2 (1952), 68–71.
- Haig, James, *Philosophy; or, the Science of Truth*, London: Saunders, Otley, and Co, 1861.
- Knepper, Gert M., “Wat aan mij en aan jou? Betekenis en vertaling van *gunai* in Johannes 2:4 en 19:26”, *Met Andere Woorden* 34:2 (2015), 2–13.
- Liddell, H., Scott, G. R., and Jones, H. S., *A Greek–English Lexicon*, 9th ed., With revised supple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Louw, Johannes P. and Nida, Eugen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 vol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 McHugh, John F., *John 1–4: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London: Bloomsbury, 2009.
- Michl, Johann, “Bemerkungen zu Joh. 2,4”, *Biblica* 36:4 (1955), 452–509.
- Moloney, Francis J., *The Gospel of John*, Sacra Pagina Series 4,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 Moulton, James H. and Milligan, George, *The Vocabulary of the Greek New Testament Illustrated from the Papyri and Other Non-literary Sources*, Grand Rapids: Eerdmans, 1930.
- Newman, Barclay M. and Nida, Eugene A.,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Gospel of John*, UBS Helps for Translators 26,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80.

Nida, Eugene A., *God's Word in Man's Language*, New York: Harper & Row, 1952.

Nida, Eugene A., *Lexical Semantic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Resources for Biblical Study 25, Atlanta: Scholars Press, 1992.

Nida, Eugene A., "Translators' Creativity Versus Sociolinguistic Constraints", Ann Beylard-Ozeroff, Jana Kralova, and Barbara Moser-Mercer, eds., *Translator's Strategies and Creativity: Selected Papers from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rague, September 1995)*, Amsterdam: Benjamins, 1998, 127–136.

Nida, Eugene A., *Fascinated by Languages*, Amsterdam: Benjamins, 2003.

Nida, Eugene A., and Taber, Charles 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Bible Translating*, UBS Helps for Bible Translators 8, Leiden: Brill, 1969.

Palmer, Michael, "How Do We Know a Phrase Is a Phrase? A Plea for Procedural Clarity in the Application of Linguistics to Biblical Greek", S. E. Porter and D. A. Carson, eds., *Biblical Greek Language and Linguistics: Open Questions in Current Researc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8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3, 152–186.

Schnackenburg, Rudolf, *Das Johannesevangelium*, Freiburg: Herder, 1979.

Stine, Philip C., *Let the Words Be Written: The Lasting Influence of Eugene A. Nida*,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Voinov, Vitaly, "Pronominal Theology in Translating the Gospels", *The Bible Translator* 53:2 (2002), 210–218.

Wendland, Ernst R. and Nida, Eugene A., "Lexicography and Bible Translation", J. P. Louw, ed., *Lexicography and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Bible Translation*,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85, 1–52.

Witherington, Ben, *John's Wisdom: A Commentary on the Fourth Gosp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5.